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8년 11월호

통권 제 18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10월 교우소식

### 감 사

☞ 유연준권사, 5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장 례

☞ 고 김공환집사(유연준권사 부군), 2일 별세 4일 장례.

☞ 고 이치정권사(91세), 15일 별세 17일 장례.

### 축 하

♣ 정선주교우(정순웅·조명자집사 딸), 흥익대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 안소영선생,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21일(화) 오후 7시 30분, 소망교회

### 입 원

♣ 남궁혁청년(장미화집사 아들), 백병원 1013호.

♣ 정옥자교우(서동진청년 모친), 서부병원 303호

♣ 이재영(이동호집사류금주목사 아들) 수지 정형외과 305호.

### 이 사

☞ 김정희권사, 성북구 돈암동 636 이수 브라운스톤(아) 107-1504호

## 백일기도회

교회창립 백주년을 앞두고 10월1일부터 백일 릴레이기도를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새벽기도, 개인.구역 릴레이기도, 금요심야기도회로 이루어진다. 이 기도회는 12월31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 은혜의 단비가 넘치는 금요기도회

박진령 집사

가을비가 오늘 드디어 내렸다. 이제 단풍은 더 짙어져가고 하늘은 비취색으로 물들어 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오갈 곳 없는 나그네이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때론 지치고 힘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기 일쑤다. 금요기도회는 어쩌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안식처 같은 곳이다. 세상사에 낙심되고 나태함이 나를 감쌀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게 해 주는 신비한 힘을 금요기도회에서 얻는다. 서먹서먹한 성도들 끼리 말씀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근접한 답도 찾아보고 기도해주는 시간은 금요기도회의 꽃이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옆 사람에게도 큰 감명을 주며 덩달아 눈물을 흘리게도 한다. 말씀 후 공동기도로 조목조목 기도제목을 일러주시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다. 함께 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어떻게 왜 기도해야할지 몰랐던 난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 받기를 원했고 응답이 없을 땐 답답한 마음이 나의 귀한 시간과 정열을 빼앗아 갔다. 기도는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인 것 같다. 나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마지막 호흡 때에 분향을 그리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우연한 기회로 찬양

을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에 미숙한 저를 뽑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같은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해 주시리라 믿는다. 안동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넘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금요기도회를 모퉁이 돌로 삼아 전교인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화되길 바라며 기도와 더불어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금요일 안동교회로 바쁘게 움직이시길 진심으로 간구한다. 사랑하는 안동교회 형제 자매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하나이고, 그 하나가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금요기도회에 해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게 되길 바라며 금요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소허당 개방기념예배

안재훈 목사

소허당 개방기념예배가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소허당에서 있었다. 문화선교국장 윤병대 장로님의 예배 인도, 전 문화선교국장인 박정음 장로님의 기도, 황영태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열린 마음"(눅 5:27-32)이라는 제목의 말씀,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마친 소허당 기념예배에는, 이주영 장로님, 구희숙 목사님과 소허당 운영위원장인 유혜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소허당 운영위원들과 안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안동교회 문화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소허당에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개방예배 때부터 소허당 앞을 지나가던 두 분의 이웃이 예배에 동참하였고, 개방 첫 날 90여 분이냐 되는 많은 이웃들이 소허당을 찾아 한국 전통가옥의 문화를 체험하고 전통차와 담소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소허당의 개방

은 단순히 이웃을 향한 쉼터의 기능만이 아니라, 북촌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소허당의 지역사회를 향한 개방이 안동교회 지난 100년의 역사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의 역사 속에서 가교와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본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으니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소허당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화요일의 단전호흡 강좌와 목요일의 쉼터 강좌는 계속된다.

## 늘푸른교실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고명수 권사

10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르신들을 태운 대형버스2대, 교회봉고차가 나들이장소인 산정호수로 출발하였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마음 졸였지만 새벽에 약간 내린 후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졸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은 모두에게 설렘과 즐거움을 줍니다. 버스 안에서 준비한 간식을 드시면서 여흥도 함께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식사는 우리 콩으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순두부백반과 주위에 있는 산에서 채취해서 만든 도토리묵으로 그야말로 웰빙 식단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산정호수로 이동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호수 주변에 쉬실 수 있게 자리를 깔아드렸고 운동 삼아 산책하실 어르신들은 호숫가산책로를 산책하며 예쁜 꽃들이 있는 화원에 들려 갖가지 꽃들을 관람하였습니다. 호숫가산책로에 곱게 물든 단풍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번나들이엔 특별한 이벤트로 보물찾기가 있었습니다. 호수주변, 산책로주변에 숨긴 보물을 무척이나 즐거워하시면서 보물을 찾는 모습을 보니 동심의세계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찾지 못한 분한테 많이 찾으신 분들이 나눠주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버스에 승차 하기 전 한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모든 순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활발하게 걷기가 좁은 불편하신 문창아 권사님, 서정호 권사님을 비롯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88명이 함께 했습니다. 늘푸른 교실을 위해서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담아주신 김동형 집사님, 후원

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리빙 웰(living well)을 아시나요?

김금희 권사

늘푸른교실에서 '리빙 웰(living well)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초빙강사 이윤학 장님께서 두 주 수요일을 거쳐서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열강을 하셨고 우리가 감명 깊게 들었지만 아직도 아쉬움은 남는다. 혹시라도 중병에 걸려서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신이 있을 때 인위적 연명 조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이 리빙 웰 (living well)이다. 웰 다잉(well dying)이란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Well being의 완성은 well dying 이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尊嚴死)에 대한 합법적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존엄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존엄사는 희생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달리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 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 논의를 자기 안에 내밀한 구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현실의 한 복판으로 끌어낼 필요성을 말한다. 죽음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솔직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 의료 지시서' (예문) 작성의 자세한 서식 내용이며 죽음도 준비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여 그러므로 서로 화평을 나누면서 감사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별 준비는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서약과 서명을 하라는 것이다.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목사님은 죽음을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을 몰랐듯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어머니의 태중에서처럼 다음 세상을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출생했고 이제는 자신의 고통으로 통과해야만 다음세상이 우릴 기다리고, 열리는 세계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상상해 보라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쉽게 풀어주신 유경재목사님을 떠올리게 하는 참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편안히 맞을 수 있게 하려면 정리가 안 된 죽음의 이해를 다듬어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경재목사님의 저서 "출생처럼 죽음도 은총이다"라는 책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차분히 죽음 준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길 기원한다.

## 제1회 말씀 암송 큰잔치

류화숙 전도사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아동부에서 주관한 첫 번째 가족별 말씀 암송 큰잔치가 10월 12일 본당에서 열렸다.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입장했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아동부 홍보 영상과 함께 막이 올랐다. 사회는 아동부 교역자인 류화숙 전도사와 이재영 교사가 맡았다. 황영태 담임목사 가정과 안재욱 목사 가정, 그리고 교육국장님 수고하시는 임종규 장로 가정을 비롯한 1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5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짧은 skit과 노래, 율동을 비롯해 영상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한 참가팀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심사는 구희숙 목사, 강명준 장로, 장문자 장로, 박정음 장로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호응도 및 참가인원 가산점, 창의성, 무대매너,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중간 중간 청중을 대상으로 한 돌발 퀴즈가 나가면서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재미있게 역전시켜 나갔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대상은 'you raise me up' 음악에 맞춰서 가족의 영상을 감동 있게 그려낸 이호창 집사 가정에게 돌아갔으며 으뜸상엔 영어, 스페인어와 멋진 노래를 선사해 주신 황영태 목사 가정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버금상엔 7명의 대 가족이 참여해 연극과 함께 시편 1편을 익살스럽게 암송해준 김희창 집사 가정에게 돌아갔다. 한편 시편 23편을 경상도 사투리로 암송해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이기주 집사 가정은 인기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약간의 율동을 선보이며 암송한 안재욱 목사 가정에게 돌아갔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파운드 케익을 선물했다.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작은 음악회 관계로 각 기관별 월례회가 앞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말씀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수고해 주신 모든

참가팀과 심사위원, 아동부와 청년부 staff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믿음의 전승' 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 성경암송잔치

최소영집사

10월 12일에 '성경암송잔치'가 있었다. 아동부의 주관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다. 우리집 아이가 아동부에 속해 있고 남편(이호창 집사)이 아동부 부장, 내가 교사를 맡고 있어서 우리 가족의 참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었다면 과연 참가했을까 싶은 생각들이 정도로 우리 가족은 그다지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실 어느 선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꽤 부담이 컸다.

어떤 형식으로 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가정 속에 흐르는 '믿음의 전승'을 영상과 암송 고백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찍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시조부님(이건 목사),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자식들에게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시부모님(이주원 집사와 이신영 권사), 안동교회에서 자라나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시누이들(이미숙, 이광숙, 이지숙, 이경애, 이영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이어나가야 할 우리 가정(이호창, 최소영, 이정하)의 빛바랜 사진들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편집하며 새삼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암송구절로 선정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대한 확신을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다.

'믿음의 전승'을 주제로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정 내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신앙의 전통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에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을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도 귀중한 신앙의 전통을 잘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갖게 되었다. 나의 경우 기독교신앙의 바탕에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고 아직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아직 어리지만 우리 아이 정한이에게도 남다른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암송잔치가 열렸고 우리 순서는 마지막이었다. 가족 전체가 나와 공들여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재치가 빛나는 공연도 이어졌다. 늘 생각하지만 그 앞에 나가면 왜 그리 떨리는지... 암송을 하면

서는 괜찮았지만 시작 전엔 무척 떨렸다. 남편은 오히려 담담했다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듯 했다. 큰 실수 없이 잘 했고 우린 대상을 받았다. 지금도 주님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날 애썼던 다른 참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

성경암송잔치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우선 2부 예배 후 짧은 시간 안에 행사를 서둘러 치르다 보니 행사의 취지와 의미가 다소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시간과 순서를 안배했으면 좋겠다. 또 시상의 문제인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가족의 특성에 맞게 제목을 달아 시상을 하면 좋을 듯 싶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경현이네, 사투리로 웃음을 선사한 정석이네, 연기가 탁월했던 대홍이네 등 각 특성에 맞게 제목을 달리해 같은 내용의 상을 준다면 더욱 더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암송잔치는 나와 가족 모두에게 신앙과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내년에는 전교인이 다 같이 참여하는, 재미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중고등부 야외예배

고상요 집사

중고등부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남경수목원으로 올해 첫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와 학생 45명이 버스를 타고 40여분 걸려서 찾아간 남경수목원은 고즈넉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나무들로 꾸며진 높은 가을 하늘아래 신록이 푸르른 곳이었습니다. 주일아침 자연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다같이 수목원내 운동장에서 발야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선생님들은 삼겹살 바베큐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한 밥과 반찬을 꺼내 함께 모두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즉석 바베큐로 함께 먹고, 미리 밥과 반찬,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서 먹으니 더욱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후에도 팀을 나누어 서로 축구와 족구의 운동경기를 했으며, 일부는 수목원 산책을 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도 하고, 땀 흘리면서 즐겁게 보낸 이날

야외예배는 오후 3시경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WCC-본교단, 세계교회 일치운동

본교단 총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에큐메니칼 선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본교단 김삼환총회장(명성교회 시무)과 WCC 샘 코비아총무가 장시간 회담을 갖고 WCC 제10차 총회의 서울 유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샘 코비아총무는 'WCC 서울총회'에 깊은 관심을 표했으며, 김삼환총회장의 아프리카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제네바 레만호수 위에서 진행된 만찬 중 김삼환총회장은 올 연말까지 명성교회를 통해 WCC에 미화 5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WCC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했다.

회담에서 김삼환총회장은 "아프리카를 통해 선교의 미래를 재정향 해야 하고 한국과 아프리카교회의 협력을 통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자"며, 아프리카교회와 한국교회 간의 전략적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교회와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건 샘 코비아총무는 "그동안 WCC가 지역교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에 6명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WCC를 방문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건 무척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을 계기로 교회들과의 협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회장을 수행했던 본교단 조성기사무총장은 "WCC와 함께 세계교회의 현안들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WCC와 본교단이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하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실무차원에서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 교회협,

### 에큐메니칼 선교대회 일정 확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가 지난 10월 23일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 개막하는 에큐메니칼 선교대회 및 제57차 정기총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원교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교대회에 앞서 교회협은 오는 10일~15일까지를 에큐메니칼 선교주간으로 정하고 매일 다양한 주제의 선교포럼을 열기로 했다.

'생명 평화 정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는 명성교회(김삼환목사 시무)에서 개막하며,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엘 코비아총무가 참석해 국내 신학자들과 신학의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현재 교회협은 준비위원회(위원장:손달익)를 구성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교회협 실행위는 지난 5월 교단 통합 과정에서 분열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회원권과 관련해 박성배목사 측의 회원권을 인정했다. 당초 3차 실행위에서는 연합을 권유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박성배목사는 "분리된 양 교단이 화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회협 실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개최하는 제57차 총회의 회원권은 박성배목사 측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회협 권오성총무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평양 기도회 일정을 소개했다. 교회협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평양 봉수교회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지난 1986년 제1차 글리온 회의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회의 공동 성만찬이 열리기도 한다.

평양 기도회에는 모두 1백10명의 남한교회 대표가 참석하며, 본교단에서는 문장식목사(서울북노회 공로)와 노정선교수(연세대), 김종생목사(한국교회봉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대한YWCA연합회

### 제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

대한 YWCA연합회(회장:강교자)는 제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 이인복명예교수(숙명여대)와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에 우주인 이소연 씨(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2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지도자 대상에 선정된 이인복교수는 지난 1978년부터 30여 년 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살피고 치유하며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2002년 43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남편인 심재기명예교수(서울대)와 함께 퇴직금과 연금, 사재를 모두 털어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센터 '나자렛 성가정공동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인 박종화목사(경동교회)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 평생을 피해계층 여성들을 위해 봉사했다"면서 "재능과 시간과 재산을 바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이 교수는 이 사회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한 우주인 이소연 씨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한국 과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장본인이자 특히 여성 과학도들의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강한 체력을 다지고 어려운 훈련과정을 견뎌낸 이 씨는 국민들에게 당당한 여성상을 각인시켰으며 외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이날 이 씨는 "우주 비행을 통해 지구의 환경은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 받은 지구를 후손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목사는 심사보고를 통해 "한국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는 한편 13개 부문의 기초 과학실험과 5개 부문의 교육실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면서 "아직은 여성들에게 척박한 영토인 이공계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 '대안' 교육의 새 희망

최근 국제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

질으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월 24일 CTS 기독교TV(사장:감경철)는 당사 컨벤션홀에서 제1회 CTS 기독교대안학교 세미나 '교육의 새로운 희망, 대안학교'를 개최하고, 국제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논의했다.

박상진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남진석이사장(글로벌비전크리스천스쿨) 단혜향교장(독수리학교) 정기원교장(두레학교) 김상희기획국장(수원중앙학원) 등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선진교육의 방향, 국제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방안 △가정과 함께 기독교교육 세우기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철학-준비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정부인가 학교와 비인가 학교의 비교 및 중앙기독교학교의 현재 모습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박상진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출 3:9)라는 성경구절을 인용, "저주가 되어버린 교육을 축복으로 바꿀 힘은 신앙이다"고 강조하며 "이미 기능이 축소되어 기독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는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한국교회가 교계 지도자 뿐 아니라 이 민족과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CTS기독교TV 측에서는 이번 세미나 이후 앞으로 CTS 뉴스를 통해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가 갖는 장점을 보도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기독교학교의 사례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 및 지속적인 세미나와 특강을 개최해 올바른 교육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월드비전, 저소득가정에 학자금지원

한국월드비전(회장:박종삼)이 한영회계법인 사회복지후원회 '한영한마음나눔'과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로써 어려운 형편에 놓

인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총 3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조손·한부모·장애인 저소득가정 자녀들. 24명은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0명은 대학입학 후 등록금 지원으로 총 34명의 청소년들이 수혜받게 될 전망이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월드비전 본부에서 월드비전 박종삼회장, 한영한마음나눔미 전정복회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월드비전의 국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종삼회장은 이번 협약식이 "최근 경기악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면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논현동 참사' 유족, 한국교회 위로 나섰다

한국교회가 논현동 고시원 참사로 숨진 중국동포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장례예배를 열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 주최,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김삼환, 단장:오정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는 그간 장례비용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했던 중국동포 고 박정숙 이월자 조영자씨와 민대자씨를 위해 진행됐다.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치러진 예배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외에도 개교회 성도 2백여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유족들의 오열 속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추모했다. 추모사를

낭독한 고 이월자씨의 장녀 방해란씨는 "고시원 쪽방에는 먹다 남은 찬밥이 있었다. 어머니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 하나 함부로 사먹지 못했다. 어머니의 일생은 오직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며 울부짖었다. 고 박정숙씨 남편 차영선씨는 "기독교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동포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한국교회봉사단 및 교계 단체들은 유족 한 가정당 2천만 원의 위로금과 추가로 모금되는 지원금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부상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3백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지난 24일에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위로예배를 가진 총회장 김삼환목사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여 소망과 위로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것을 약속했다. 이날 김 목사는 유가족 한 명 한명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한 가정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한국루터교 50주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총회장:엄현섭)가 선교 50주년을 맞아 성가제를 개최하고 한국루터학회를 창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루터회는 서울 신천동 소재 루터회관을 '선교50주년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교연합 성가제 △기념사료집 편찬 △한국루터학회 창립 △기념예배 및 대회 △루터강좌 등을 마련했다.

루터회는 지난 10월26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선교50주년 기념예배 및 대회를 개최했다. 50년전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미조리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최희범목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임동진목사(열린문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미래비전 선언문이 선포됐으며, 참석한 루터교인들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또한 10월 27일에는 엠베서더호텔에서 루터강좌 및 축하만찬이 진행됐다. 미국 컨콜디아대 로버트 콜브 교수가 루터교 신학의 '두 영역론'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일본 루터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1백50여 명의 루터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50주년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4일 창립된 한국루터학회는 국내 초교파적 루터학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홍지훈교수(호남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엄진섭박사(루터대학교)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루터교 총회는 50주년의 모든 행사를 위해 전국의

루터교회가 1백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밝혔다. 루터교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 설립된 교단으로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의 교인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1958년 미국의 미조리시노드의 선교로 시작되었다. 한국루터교회는 그동안 루터란 아워, 베델성서연구원, 컨콜디아사, 통신강좌, 루터대학교 등을 통해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에 복음전파와 신앙 성숙을 도와왔다.

## 기독교인 자살 예방 기도집회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연예인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 방지 캠페인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교회희망연대, 국가조찬기도회 등 교계 기관들이 대거 연대하며 참여하게 될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자살은 죄입니다." 이철신목사(영락교회 시무), 정삼지목사(제자교회 시무), 최이우목사(종교교회 시무) 같은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 외에도 임동진 이정길 최선자 정영숙 한인수 박영지 정선일 정태우 등 한국기독교문화예술연대 소속 연예인들이 참여한다.

29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도집회가, 11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목사 시무)에서 희망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13일에는 입시를 치른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탈행위를 막기 위해 학부모 및 수험생을 초청해 하나님 안에서 새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로 및 기도한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예능인들의 잇따른 자살에 한국교회도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추진됐다. 이철신목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딱 한번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면서 "자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지도자들이 종교와 이념을 떠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지난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1백만인 국민서명 결과보고 및 전달식을 가졌다.

북한의 아사위기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정부의 대북식량 20만톤 긴급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1차적으로 발표했고 이후 종교인들의 모임은 인도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확대되어 왔다. 이날 박종화목사(경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전달식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한 묵념, 김명혁회장(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인사말, 법륜스님(정토회)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윤구총재(결핵제로운동본부) 방송인 한지민 씨 등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 전라 경상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나 해외에서도 동참해 5일 기준 1백1십3만4천1백41명이 서명해 1백만인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범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홍진신부(문정동성당) 김성효교무(원불교) 김상복목사(할렐루야교회) 등은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드리는 글' 제하의 호소문을 통해 △하루 빨리 긴급식량 20만톤을 지원해 줄 것 △북한의 경제개발 기금으로 정부예산의 1%를 사용할 것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방송인 배종옥, 김여진 씨가 2004년 탈북한 장진성시인의 "우리의 밥은 쌀밥이 아니다. 나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이 나라엔 산이 모두 벗겨지고도 나무가 모자라 수백만이 굶어죽었다"는 내용의 시를 낭독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행사 후 종교인 대표들은 1백만인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존우물가

2008년 11월호 · 통권 제185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발행일 : 2008년 11월 2일